시론 무계획 고속철도 사업의 대안모색

창고행 TGV, 신계획티켓은 남아있다

김 용 섭
〈법학과 교수〉

노태우전대통령의 집권말기 정치적 무리수에 의하여 강행된, 최대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사업이 IMF 체제의 빈사경제에 커다란 골칫거리로 등장하였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 시속 300㎞대의 속력으로 서울과 부산을 2시간안에 쾌속질주하여 '빨리빨리증후군'에 걸려 있는 사람들의 조급증을 덜어줄 수 있었을 터인데, 그 사업은 계획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갈팡질팡하다보니 개통시기조차 언제가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가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최초 결정과정 자체가 충분한 준비과정과 공개적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선거공약을 지킨다는 위장된 명분과 대통령의 임기중에 추진해야 겠다는 노태우전대통령 아집 등으로 성급하게 내려진 결정이었고,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도 사업추진이 전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와 같은 혹독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최근 TGV 1편성(20량)이 국내에 반입되었으나, 장기간동안 운행도 못하고 천덕꾸러기가 될 판이다. 철로건설이 적기에 이루어지기 어렵고 공사구간의 토지확보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준비없이 국책사업을 벌여 국민세금을 탕진한 사례를 여러 번 지켜보았지만, 세금을 내는 납세자는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경제성, 채산성도 없다시피한 경부고속철도사업을 무리하게 계속 추진하는 것을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는 심정으로 바라볼 것이다.

납세자는 공행정이 경제성과 효율성을 갖고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정부는 행정계획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장래를 위한 청사진 마련과 목표달성, 경비절감, 위험감소를 도모한다. 그런데 경부고속철도사업은 무계획의 전형적인 사례에 속한다. 준비성 없는 무리한 사업추진, 지나치다고 할 정도의 사업계획변경, 부실공사, 공기지연, 막대한 규모의 사업비 증가 등 그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할 수 조차 없다.

21세기에 대비하여 사회간접자본의 확충도 좋으나, 대량실업사태 국가의 경제규모가 축소되는 마당에 무리하게 사업을 밀고 나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 당초 5조 8천억원이던 공사비가 최근 감사원특감결과 22조원으로 늘었는바, 이처럼 천문학적인 공사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도 문제지만 공사완료 후에는 고속철도요금이 항공요금에 버금갈 터인데 누가 이용하겠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주된 이용계층은 고소득층일 터이고 TGV는 여객전용이므로 물류난 해결에 크게 기여할지도 미지수이다. 또한 앞으로의 사회는 재택근무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화시대와 지방화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면 사람들의 이동이 지금보다 마냥 크게 늘 것만 같지는 않다. 실업자가 고속철도를 타고 일찍 달려간들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푸념도 나올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고속철도사업을 유보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적지 않은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이미 공사에 투입된 2조 5천억여원이나 되는 막대한 비용, 고속철 사업을 보류할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적 처리비용과 국제신인도 하락, 사업을 신뢰한 건설업자 등의 신뢰보호 등의 법적 문제들을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다.

책임행정 구현차원에서 정책실패와 국고손실을 초래한 관련책임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속철도사업을 축소재조정하고, 사업비의 규모도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공사기간이 늘어나서 TGV가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계약불이행 내지 이자부담 증가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공기단축만을 생각하다보면 대형사고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속철도사업을 시기적·장소적 간격을 두고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사업구간도 서울에서 대전까지로 하여, 사업비를 대폭 절감하고 조기에 TGV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역점을 두고, 사업추진을 총력집결하여 조기에 1단계 사업을 완성하고, 운행을 한 후 안전성 등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주행거리가 짧아 고속철도의 존재의미가 반감되기는 하나, 나라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추후에 철로 연장을 해나가면 될 것이다.

TGV차량이 국내에 장기방치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우리의 IMF 체제라는 것이 당초계약당시에 고려되지 아니한 특수한 사정이므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내세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만약에 계약체결을 잘못하여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체결과정에 관여한 자에 대한 변상책임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협상을 통하여 TGV의 인수시기를 최소한 서울-대전간의 공사완성 후로 재조정할 필요성을 느낀다.

끝으로 책임행정의 구현차원에서 정책실패와 국고손실을 초래한 관련책임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겠고, 나아가 효율적인 고속철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전문인력을 대거 보강하여 고속철도사업의 추진체계를 재정비하는 일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사 설

우리에게는 희망이 필요하다

대란이다. 비공식 집계 실업인구가 4백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현시점은 한 국이라는 국가의 미래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음을 내포하고 있다.

IMF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전반적인 자괴감은 차치하고서라도 국민정서에까지 침투하고 있는 절망의 늪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교육, 문화, 의식 등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IMF한파는 국민 개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이다. 이미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고금리, 고물가라는 실물경제 모습 앞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는 공허한 메아리로 밖에 다가오지 않는다.

앞으로 이루어질 금융권 개혁과 재벌 구조조정은 사안 자체가 대규모 실업사태를 내포하고 있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전망과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방향과 비전은 전무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실업사태와 물가상승은 더더욱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더불어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합의사항들이 고물가와 대규모 실업사태라는 변수 앞에서 허무하게 흔들리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희생과 강요를 다시 부추기고 있는 분위기이다.

경제위기로 인해 국가전반적인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같은 많은 혼란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뚜렷한 대안과 비전 제시가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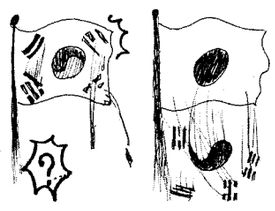
작금의 경제현실은 냉혹한 국제사회 앞에서 풍전등화의 모습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만큼 외국투자가들에 의해 우리의 앞날이 결정될 정도로 우리의 경제 상황은 취약하기만 하다. 외국투자가들의 의중에 따라 한국은 경제식민지로 추락할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대학도 예외일 수는 없다. 각 대학마다 학생 등록율의 감소로 야기된 교육재정 부족사태는 대학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대학사회에 만연시키고 있으며 비판의식과 도전정신은 대학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제논리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IMF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이겨낼 수 있다는 굳건한 의지와 단결력이라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구태의연한 강변보다는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개혁을 원한다. 국민들은 더 이상 현실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의지도 힘도 없다. 4백만의 실업인구에게는 분노만 남아있을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앞에 놓여있는 빵보다는 밝은 미래가 담보되어 있는 희망이라는 것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세시봉 일본문화, 두려워 하지 말자

"오늘 XX영화관에서 상영할 영화는 안노 히데아키의 '신세기 에반게리온'과 김수정의 '아기공룡 둘리' 입니다. 지금 한 가요프로순위에서 1위를 두고 H.O.T와 Glay(작년 일본에서 4백만장의 음반을 판 록그룹)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임재원의 '짱'이 다다케히코 이누우에의 '슬램덩크'의 판매부수를 앞서고 있습니다"



김동혁 문화부장

이처럼 한국문화와 일본문화가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은 문화관광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본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데 두려울 것이 없다'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외국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 재창조함으로써 고유 문화를 발전시켜 왔고, 이는 일본문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일본문화 개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정부는 이와 관련해 영화는 극장상영·비디오·방송, 대중음악은 공연·음반·방송의 차례로 개방한다는 구상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계층에서는 일본문화 개방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아직 일본이 옛 잘못을 바로잡지도 않았고, 우리 문화도 바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을 앞세운 일본의 상업 대중문화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

사실 일본문화의 개방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저급한 일본만화에서부터 패션까지 일본문화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침투한지 오래된 것이 현 실정이다. 또한 젊은 층들은 그들의 문화를 동경, 선망까지 하고 있다. 작년 저급한 일본만화에 의해 학생들의 폭력이 증가해 심의문제까지 번진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언제까지 일본문화 개방에 왈가왈부할 것인가. 경직된 입장은 현 우리문화에 대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해방 이후 일본문화의 유입을 반대하는 입장은 반일 감정에서 비롯된 민족정서가 주된 이유겠지만 그런 피해의식을 하루 빨리 벗어던져야 한층 더 높은 문화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일본문화 유입에 대한 철저한 정부의 사전계획과 대중들의 자각심이 있다면 그들 문화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PC통신원 청와대로 잠입한 해커

93년 청와대 전산망에 무단침입해 은행에서 돈을 빼내려다 적발됐던 '전직 해커' 김재열씨가 재정과 행정, 공공부문 개혁업무 등을 담당할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대학 진학에 실패한 후 컴퓨터에 몰입했던 그는 청와대 해킹 사건 후 대우그룹 특채사원에서 공무원에 이르는 상상치 못했던 행운을 잡았다. 이에 PC통신 나우누리에서는 '해커가 공무원?'라는 주제로 토론이 한창이다.

몇몇 찬성하는 통신인들은 학벌보다 실력을 인정하는 사회가 된 것 같아 기쁘다(ID:순순시대, 컴맹구 등)며 해커의 사회 진출을 반갑게 맞아들이고 있다. 또한 한번의 실수가 평생가는 것은 너무하다(ID:parksj)며 능력이 있다면 기회를 줘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해커가 공무원이 되는 것에 냉랭하게 반기를 들고 있다. 대부분 청렴결백을 요하는 공직을 해커에게 맡길 수 없다(ID:sun비천)는 주장이며, 몇십년 전 잘못으로 임용취소 당해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이 많은데 범죄자를 특채로 채용하는 것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동(ID:mecius, tera73 등)이라는 지적도 많다. 김재열씨의 공무원 채용으로 인해 많은 컴퓨터 광들이 해킹에 열중하게 될 것도 무시할 수 없다(ID:windxman)며 걱정하는 토론인도 있다.

예로부터 공직에 있는 관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덕목은 곧은 인품이었다. 물론 요즘도 과거와 다를 바 없이 공무원에게 사심없는 맑은 마음이 요구된다. 그러나 남의 돈을 탐했던 엄연한 도둑인 해커에게 정부의 요직을 내주는 것은 공무원의 윤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해킹을 조장하는 섣부른 행동일 수 있다. 신선한 인사개혁도 좋지만 그 파장이 불러올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에 신중해야 한다.

〈정수윤 기자〉

경희만평

노 희 령

노트북 특별 보상교환 판매
180만원 일괄 보상교환! (기간:5월 2일~23일)
■보상제품: 현재 작동 가능한 대우 및 타사 노트북 ■보상가격: 180만원
■교환제품: 솔로 CN530-3K407C모델 *기종불문, 타사제품도 대환영
▶CN530-3K407C · 233MHz MMX™ 기술구현 펜티엄® 프로세서 · 32MB 기본 메모리 · 3GB 울트라 DMA 지원 고속 HDD · 12.1" TFT L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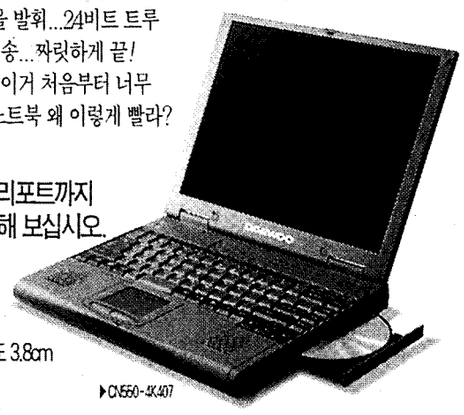
대우통신

사이버 대학, 사이버 강의,
「솔로」 하나면 충분하다!

입학과 동시에 고딩어식 공부는 쫑! 진시황릉을 샅샅히 파헤쳐 전자메일로 띄우라는 동양사 첫 과제. 멋지게 해치우고 말거야. 웹 사이트에서 관련 데이타와 이미지 화일 다운. 빵빵한 문장력과 논리력을 발휘...24비트 트루 칼라로 리포트 작성..이메일 전송...짜릿하게 끝! 내용 빵빵하고, 레이아웃 좋고 이거 처음부터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노트북 왜 이렇게 빨라? 솔로, 역시 잘 샀다고 봐!

"동양사 첫 과제,
솔로와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다"

사이버강의, 인터넷, 채팅, 리포트까지
솔로의 고성능을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CN550-4K407

▶FDD, CD 롬 드라이브를 장착하고도 3.8cm 초슬림, 2.5kg 초경량 실현
▶국내 유일 특수 우레탄 코팅 노트북
▶국내 유일 1년간 도난보험 무료 제공(CN530/550 시리즈 전제품)
▶100% 마우스기능의 국내 유일 Wheel터치패드 채용
▶초당 33MB 전송, 국내 유일 울트라 DMA 지원 초고속 HDD

SOLO 고성능 노트북「솔로」

▶CN550-4K407 · 266MHz MMX™ 기술구현 펜티엄® 프로세서 · 32MB 기본 메모리 · 4MB 비디오 메모리 · 3GB 울트라 DMA 지원 고속 HDD · 13.3" TFT LCD
▶CN530-3K407C · 233MHz MMX™ 기술구현 펜티엄® 프로세서 · 32MB 기본 메모리 · 2MB 비디오 메모리 · 3GB 울트라 DMA 지원 고속 HDD · 12.1" TFT LCD
▶CN530-1G407 · 166MHz MMX™ 기술구현 펜티엄® 프로세서 · 32MB 기본 메모리 · 2MB 비디오 메모리 · 2GB 울트라 DMA 지원 HDD · 12.1" TFT LCD
▶CN530-XG307DC · 150MHz MMX™ 기술구현 펜티엄® 프로세서 · 16MB 기본 메모리 · 2MB 비디오 메모리 · 2GB 울트라 DMA 지원 고속 HDD · 12.1" DSTN LCD
■공통사양 · 512KB 캐쉬 메모리 Wheel 터치패드 20배속 CD-ROM CD-ROM / FDD 동시 사용 32비트 카드버스 지원 2V 포트, USB 포트 TV아웃포트 내장

MMX intel inside pentium PROCESSOR
Intel Inside로고, Pentium칩 펜티엄®은 인텔사의 등록상표이며 MMX™는 인텔사의 상표임

시청과학부 1학년 하정은

소비자 상담실: 080-022-8383
하이텔/천리안/나우누리: GO DWPC
인터넷 홈페이지: www.dwt.co.kr

■강남 영업부:3474-3200 ■강북영업부:726-2953~8 ■강서영업부:658-3200 ■용산영업부:718-5033 ■지사 ●부산지사 : 051)853-4455 ●충청지사 : 042)621-5033 ●호남지사 : 062)526-4300~1 ●경북지사: 053)768-3090 ●경남지사 : 0551)77-2007~8 ●경인지사 : 032)872-0255 ●경기지사 : 0331)257-7755 ●강원지사 : 0371)732-7321 ■전국 대우통신 대리점, 대우 가전마트 및 세진컴퓨터랜드에서 「솔로」 신제품의 고성능을 확인하세요

대우통신 A/S 이제 서비스뱅크에서 실시합니다 「365일 고객지원센터」 전국공통:080-365-1120 (강원 제주제외)
서울/경인:02)634-1120 강원:0391)42-1120 영남 :053)764-1120 충청/호남 :062)250-1120 제주:064)59-1120